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의 性格

—특히 Asia의 共同體 및 生産樣式과 關聯하여—

權 丙 卓
(大邱大學·助教授)

차 례

I 問題의 限定

III 共同體의 成員의 性格

II 共同體의 類型

IV 結 言

I. 問題의 限定

韓國經濟史學이 學問으로서 研究되기 시작한지 一世紀에 가까운 歲月이 흘렀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體系의으로 把握하려고 할 때는 아직 많은 問題들이 未開拓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古代經濟社會에 관해서는 그 時期 設定 問題까지도 各者의 說이 區區한 뿐만 아니라 1) 最近에 이르서는 謫史觀의 古典의 解釋에 대한 새로운 解釋이 나타나게 되어 2) 問題를 한층 더 混亂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混亂은 經濟史學을 發展의으로 分析하여 그 發展의 正確한 運動法則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꺾지 않으면 안될 混亂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 問題와 關聯하여 여러가지 角度에서 問題를 提起, 試圖, 批判, 論爭하여 假想的일지라도 어떠한 到達點을 摸索하는 것이 오늘날 當面한 우리 經濟史學의 第1次的 課題中的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가 試圖하는 바는 筆者가 韓國經濟史學 特別 古代史 部門에 관하여 修學을 試圖한 以來로 줄곧 느껴온 從來의 研究方法에 대한 反省으로서 지금까지의 先輩諸家의 業績을 土臺로 하여 筆者의 앞날의 研究를 위한 課題를 提起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 提起된 試圖가 그야말로 臆說로서 如何한 意味의 示唆를 하는 것이 될는지 豫測조차 하

註 1) 例컨대 韓國古代의 終末에 관한 學說만 하더라도 實로 區區하지만 그 時期에 관한 諸說을 要約하면 大體로 다음 세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즉

① 古代의 終末을 高麗王朝가 確立된 11,2世紀로 보는 說. 趙機濬著, 韓國經濟史, 1962. p.77 以下 및 同書, p.120以下 參照. 金三守著, 淑大, 經濟論叢 第一輯, 所收論文, 32參照. 그 밖에 韓國의 相當數의 學者들은 11,2世紀說을 좇고있다.

② 古代의 終末을 新羅統一期인 7,8世紀로 보는 學說은 崔虎鎮著, 韓國經濟史概論, 1962. p.77以下 參照. 또 白南雲著, 朝鮮社會經濟史, 1932 p.9以下 및 p.437. 同 朝鮮封建社會經濟史, 1937. p.9. 參照.

③ 韓國古代의 存在自體를 아예 否認하고 古代의 終末과 同一한 概念인 封建(二中世)의 起點을 三國이 確立된 2,3世紀로 보는 說. 全錫談著, 朝鮮社會經濟史, 1949. p.23以下 參照. 또 “最近 日本學界를 通하여 紹介된 北韓의 社會主義學者들” 中에서는 “奴隸社會의 下限을 三國의 成立期까지 追溯하는 見解”가 있다고 한다. 趙機濬著, “前掲書” p.33. 參照.

이렇게 볼 때 同一한 古代의 終末에 관한 時期問題만 하더라도 各者의 見解사이에는 千2,3百年이란 隔差가 있다.

2) 1930年을 前後하여 熾烈하게 展開된 ‘Asia의 生産樣式’ 論爭은 1939年에 그의 遺稿 ‘資本制生産에 先行하는 諸形態’가 發表됨으로써 많은 疑問과 未解決點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Asia의 生産樣式’이란 奴隸制 社會의 Asia의 形態 또는 總體的 奴隸制(=allgemeine Sklaverei를 意味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總體的 奴隸制 問題는 從來의 東洋諸國의 古代史學說을 발각 뒤집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拙稿, 韓國古代經濟史 序說 I. 邱論文集, 第四輯 1964. 收錄. p.115 및 ‘共同體로서의 Asia의 生産樣式’ 邱大 經濟論集 第三輯, 1964. 收錄 參照.

기 困難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問題 解決을 위한 조그마한 假說에 不過하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韓國 古代經濟社會 成立의 繼起의 前段階로서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의 性格을 論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社會의 ‘共同體의 性格’이란 것도 보는 角度에 따라서 그 分野가 實로 龐大한 것이지만 1)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바는 純粹한 經濟史의 觀點임은 勿論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共同體란 資本制 生産에 先行한 諸社會段階에 있어서의 生産諸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것이며 社會學的 乃至 超歷史的 意味의 共同體에 관해서는 論議의 對象外로 하는 바이다. 이러한 意味의 共同體의 性格을 究明하려고 할적에 첫째로 擡頭되는 것은 如何한 階級의 人間이 如何한 階級의 人間을 如何한 方法으로 支配하고 있었던가 또 反對로 如何히 剩餘勞動이나 剩餘生産物을 收納하였던가 하는 生産 諸關係의 問題일 것이며 둘째로 擡頭되는 것은 첫째 것과 並行하여 그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所有關係일 것이다. 특히 資本主義以前的 諸段階에 屬하는 社會의 經濟史學을 論議의 對象으로 하는 限 前者는 後者에 대하여 從屬의 存在라고 할 수 있으며 또 後者는 特別 土地所有의 形態가 當該 社會經濟의 構造의 現實의 基礎였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前資本主義의 土地 所有 諸形態는 社會經濟의 發展의 諸樣相을 史的으로 究明함에 있어서 根源的 基礎였으며 一定한 土地 所有形態가 辯證法的으로 消滅 또는 止揚되고 새로운 所有形態가 成立 또는 創造됨과 同時에 새로운 社會經濟의 歷史段階가 樹立되었다고 보아 無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K. 맑스는 “所有의 第一形態는 種族의 所有였다…第2形態는 古代的인 共同體 所有, 國家의 所有였다…第3形態는 封建의 또는 身分의 所有였다…”²⁾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經濟史學研究에 있어서 必要 不可缺하며 가장 基本條件이 된다고 할 수 있는 生産諸關係 및 所有形態 特別 土地所有의 形態를 三韓社會에서 實證的으로 求하려고 하는 것은 實로 難之難事이다. 왜냐하면 先覺諸家나 同學諸氏들이 共通의으로 느끼는 바와 같이 그에 관한 古文獻, 遺物, 遺蹟, 口碑傳說 等等은 全無에 가까운 程度로 局限되어 있고 그것도 또 實로 理解하기에 曖昧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서 正確한 解釋을 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局限된 史料만으로써 어떠한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할 것인가?

무릇 歷史科學에 있어서 法則定立은 “그것이 恒常 特殊性 *Besonderheit*을 媒介로 하여 個別性 *Eizelheit*과 普遍 妥當性 *Allgemeinegültigkeit*를 交互的으로 止揚한다는 것에 그 特殊한 方法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歷史科學의 方法’은 人間存在의 歷史의=社會의 現實形態의 內在의 合法則性을 社會의 歷史性에서 發展法則 定立的으로 또 歷史의 社會性에서 構造法則 定立的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이 兩者의 統一의 關聯에서 把握하고 또 그러한 內在의 合法則性의 必然의 方向을 個別的인 것으로 부터 物殊的인 것으로 特殊的인 것으로 부터 普遍的인 것으로의 人間의 認識運動의 歷史의 過程에서 把握하는 것이다.”³⁾

그러므로 過去의 先覺자들이 흔히 빠져 들어가기 일수였던 두 가지 方向의 도구마 *Dogma*, 즉 普遍妥當性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一國 一社會의 特殊具體性을 度外視해버리는 結果

註 1) 金三守著, 韓國社會經濟史研究, 1964. p.40에서 “共同體의 定義는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94種이 넘었다”고 한다.

2) K. Marx & F.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1845—46. 古在由重譯, 岩波文庫版 1961. p.26. p.29.

3) 田中豐吉著, 經濟史의 對象과 方法, 1961. pp.38—9에서 引用.

的 誤謬를 犯하고 마는 것이라든지¹⁾ 또 特殊具體性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世界史의 普遍妥當性과 歷史의 法則을 度外視하여 그것을 아주 特殊社會로 規定해 버리는 結果的 誤謬를 犯하고 마는 것 등의²⁾ 도구마에 빠져 들어가서 一步의 前進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混亂만 助長하는 그러한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하여 本稿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該問題에 接近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즉 普遍妥當性으로서의 ‘Asia의 共同體’ 및 ‘Asia의 生産樣式’과 關聯하여 個別的 特殊具體性으로서의 三韓社會의 共同體의 性格 特別 앞서 指摘한 바 生産諸關係와 所有諸關係를 究明하는데 問題를 局限할 것이다. 그러나 極히 限定된 史料만을 가지고 二千餘年以前의 該共同體의 性格을 生産關係 乃至 所有關係의 側面에서 把握하려고 할적에 最少限 可能的 資料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조금씩 실머리를 풀어 나가서 이를 推理하고 迂回하여 歸納의 方法으로 該問題에 接近하는 수 밖에 方法이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그 結果가 如何한 臆說을 示唆하게 될 것인지 疑懼心을 禁할 수 없는 바이나 當面한 韓國經濟史學의 實踐의 課題임에는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敢히 이러한 問題를 提起코자 하는 바이다.

II. 共同體의 類型

‘Asia의 共同體’³⁾의 末期 다시 말하면 ‘總體的 奴隸制 allgemeine Sklaverei⁴⁾의 繼起點 Nacheinanderspunkte에 該當하는 類型의 社會는 우리의 三韓時代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當時 “우리 民族으로” 眞番 以南(漢江以南)에 公布된 여러 社會를 ‘蓋國’ 또는 ‘辰國’ 이라고 總稱한 일이 있었는데⁵⁾ 結局 三國이란 ‘馬韓’ ‘辰韓’ ‘弁韓’을 말하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各各 種族同盟(=種族共同體)을 形成하고 있었던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즉 史料에 의하면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有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⁶⁾

라고 하여 三韓의 位置와 國數를 舉示하고 있다. 三韓의 位置와 國數가 過然 이 史料와 같았던 것인지의 與否는 別問題로 하더라도 이것을 通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三韓社會에는 이미 原始共同體를 벗어난 어떤 形態의 共同體가 成立되어 있었다는 것을 確認할 수가

註 1) 例컨대 白南雲氏의 前掲 朝鮮社會經濟史에는 Marx主義의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古典古代의 奴隸制生産樣式을 그대로 우리 古代社會에 移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從來 各王朝를 中心으로 하여 오늘날에 가까운 王朝를 近世라고 하고 그와 反對의 王朝를 中世或은 古代云云하는 王朝變革史 따위는 別問題라 하더라도 “王朝의 變革은 있었지만 社會構造上에는 아무런 變化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韓國社會經濟를 停滯의 本質’에서 求하려고 하는說. 勞農社刊, 李朝社會經濟史, 1964. p.77. 朴克采論文 參照.

3) 理論上 ‘Asia의 共同體’가 Asia의 古代의 German의 等的 生産樣式의 繼起의 前段階였다고 함은 Marx의 前掲 遺稿, Formen이 發表된 以來 많은 論爭이 展開되었던 것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거의 共通의 方法으로 認定하게 된 것 같다. 例컨대;

太田秀通著, 共同體와 英雄時代의 理論. 1959. pp.33-4 및 p.193.

大塚久雄著, 共同體의 基礎理論. 1955. p.45 以下.

古代史學會編, 共同體의 研究(上). 1958. p.6 以下.

拙稿, 前掲 古代經濟史 序說 I. 前掲 論文集 p. 122, 本稿 p.9의 註 5.

拙稿, 古代的 German의 生産樣式(邱大經濟論集) 1965. 本稿 p.4의 註 1. 等等 參照.

4) K. Marx, Die Formen, die der kapitalistische Produktion Vorhergehen. 1857. Verlag. V. Diets, Berlin. S. 3. 總體的 奴隸制에 관해서는 拙稿, 前掲, 古代經濟史 序說 I 및 前掲, 共同體로서의 Asia의 生産樣式 등 參照.

5) 震禮學會; 韓國史 古代篇. 1959. p.262.

6) 後韓書, 東夷傳, 韓條.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五十四國’ 十有二國 ‘七十八國’ 云云하는 이 ‘國’이란 것은 두말할 餘地도 없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것과 相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具體적으로 이 ‘國’이란 如何한 形態와 性格의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國의 構造로서의 ‘크기’부터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三國志에 의하면

“馬韓在西…凡五十餘國…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¹⁾

라고 하고 있다. 즉 ‘國’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던 共同體가 가지고 있는 戶數는 大共同體일 경우는 萬餘戶나 되고 小共同體일 경우는 數千戶로서 都合 十萬餘戶라고 하니 平均 二千餘戶라는 計算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이 ‘國’이란 古代的 統一國家와는 전혀 性格을 달리하는 말하자면 血緣의 乃至 種族的인 紐帶關係下에서 맺어진 共同體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事實을 論證하기 위하여 그 共同體의 構成單位인 ‘家’ 또는 ‘戶’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文脈上으로 보아 여기 나오는 ‘家’와 ‘戶’는 同一한 概念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近代의 意味에 있어서의 單一家族이 아니고 血緣의 紐帶에 의하여 結合되어 있는 家父長制의 大家族으로서 家父長의 兄弟姊妹는 勿論이거니와 그의 直系 傍系의 親族까지도 包含하는 共同 世帶의 大家族의 ‘家’였을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古代國家가 成立되기에 앞선 過度段階에 있어서는 世界史的으로 보더라도 血緣의 紐帶關係가 壓倒的으로 強하였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고

둘째; 三韓 七十八國(?)의 總戶數를 十六萬戶(2000戶×78)이라고 假定할적에 그것이 三韓時代보다 六,七百年 後이기는 하지만 新羅全盛期에 있어서의 京中戶數 十八萬戶²⁾보다도 적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古代 統一國家인 新羅의 全盛時代에는 이미 強勒한 血緣的 紐帶關係는 弛緩되어 三韓時代의 ‘家’에 比하여 單純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세째; 그들의 住居樣式에서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三國志 馬韓條에 의하면

居處作草居土室 形如家 其戶在上 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³⁾

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居處는 土室 草屋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은 墳墓形이며 出入口는 윗쪽에 있고 全家族이 같이 그 안에서 起居하고 있었는데 長幼男女의 分別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 共同世帶는 오늘날 南韓의 農村地域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움집’의 原始的 形態인 墳墓形的 土居에서 住居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舉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이란 句節이다. 長幼 男女가 分別없이 全家族이 그 土居內에서 함께 起居한다고 하니 얼핏 보아 原始未開人을 聯想할지도 모르지만 其實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血緣的으로 맺어진 共同世帶였기 때문에 ‘舉家共在中’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 하였기 때문에 三國志의 撰者, 先進中國人의 눈으로 이것을 觀察할 때 長幼男女의 分別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에 不過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無長幼男女之別’이란 餘他的 ‘Asia의 共同體’의 共通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土地 家畜 其他 重要動產은 成員家族의 同意없이는 家父長일지라도 任意處分할 수가 없었던’⁴⁾ 하나의 具體的 表現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그것이 血緣의 大家族이었다는 論據는 二千餘年이 經過한 오늘날까지 韓國 中國等 極東地域에 그 遺習이 남아 있는 血緣의 大家族制

註 1)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

2) 三國遺史, 卷一에 “新羅 全盛時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方里…”라고 하고 있다.

3) 三國志, 同上, 馬韓條.

4) 拙稿, 前掲, 古代經濟史 序說 I, 前掲論文集 p.123. 參照.

度이다. 이에 대하여 區區한 說明을 加하는 것은 여기에서 避하거니와 이것은 韓國史上으로 볼 때 三韓時代 以來의 遺風 遺習이라고 보아 無妨할 것 같다.

以上에서 三韓時代의 血緣地 地緣의 共同體로서의 ‘國’과 血緣的 家父長的 家族으로서의 ‘家’ 또는 ‘戶’를 構造的으로 把握하려고 試圖하였거니와 다음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家’ 또는 ‘戶’와 ‘國’을 中心으로 하여 派生될 수 있는 여러가지 問題中 ‘家’와 ‘國’ 사이에서 家群을 總體的으로 統括하는 存在로서의 村落問題와 ‘國’의 上位概念으로서의 馬韓 辰韓 弁韓等 三韓 相互間의 各種의 共同體의 紐帶關係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國’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건데 앞서 指摘한 ‘大國萬餘戶 小國數千家’云云하는 ‘大國’ 또는 ‘小國’은 相互 重層的 또는 階層的인 關係下에 있는 共同體가 아니고 다만 그 共同體가 內包하고 있는 戶數 또는 占有地域의 多寡大小의 差異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 뿐일 것이다. 그것은 ‘五十四國’ ‘十有二國’云云하는 것으로 보아 疑心할 餘地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問題는 그리 單純한 것이 아니다. 즉 他史料에 의하면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¹⁾

라는 것이 있다. 즉 各共同體에는 首長인 ‘渠帥’가 있는데 大者는 ‘臣智’라고 하고 그 다음을 次例 次例로 ‘險側’ ‘樊濊’ ‘殺奚’ ‘邑借’라는 首長이 있었다는 것이다. 李丙熙博士는 이것을 ‘弁辰 諸國’뿐만 아니라 三韓全體에 共通된 것임은 勿論이고 또 거기서 格의 差는 있을망정 모두 그것이 國邑의 主帥에 대한 稱號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臣智는 그중 가장 格이 높고 有力한 渠帥의 稱號로 或은 이를 秦支 毌支라고도 表現하였다²⁾라고 하여 그 解釋의 曖昧性을 免치 못하고 있다. 즉 ‘臣智’는 가장 格이 높고 有力한 共同體의 長이고 ‘邑借’는 그와 反對인 共同體의 長으로서 이들은 모두 各國邑의 主帥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單純히 例컨대 萬餘戶의 共同體의 主帥는 ‘臣智’이고 二千餘戶의 共同體의 主帥는 ‘邑借’라고 보기에선 너무나 解釋에 있어서 文脈에 사로잡힌 憾이 없지않다. 왜냐하면 ‘大者’ ‘次有’ ‘其次’ 等등의 用語는 上下 階層的의 性格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家’群을 統括하는 小共同體로서의 血緣的 村落의 長을 爲始해서 重層的으로 連繫되는 이를 데면 ‘Asia의 共同體’의 一類型이라고 할 수 있는 印度의 瓊瑯共同體에 있어서의 ‘차르→알→고쓰³⁾’ 따위의 諸關係가 三韓社會에 있어서도 이미 必然的으로 나타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險側’ 以下の 各共同體의 長이 ‘臣智’에 대하여 上下 服屈的인 關係 또는 階層的인 關係에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如何한 關係를 맺고 있었는지 確認할 길이 없으므로 後日의 課題로 남겨 두거니와 적어도 이 時代에는 다음과 같은 諸關係下에서 連繫되어 있었다는 根據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其俗少綱紀 國邑有主帥 邑落雜居不能善相制御…’⁴⁾ 즉 여기서 말하는 ‘邑長’이라든지 ‘主帥’란 것은 ‘臣智’의 下位概念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고 앞서 指摘한 ‘邑借’等은 ‘邑長’의 寫音으로서 同一 概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新羅의 建國神話에 나오는 六村의 各村長⁵⁾은 弁辰 十二國中의 하나인 斯盧國의 臣智가 아니고 그의 下位概念에 屬하는 것일 것이다.

註 1) 三國志, 同上, 弁辰條.

2) 震檀學會, 前揭韓國史, 古代篇, p.299.

3) 拙稿, 前揭 古代經濟史序說 1. 前揭論文集, p.123. 參照.

4) 三國志, 同上, 馬韓條.

5) 三國史記, 新羅本設, 第一,

세째; 當時 이미 祭祀와 政治는 分離되어 있었다는 것.

넷째; 馬韓, 辰韓, 弁韓의 上位概念 乃至 總體의 統一體로서의 ‘辰王’이 있었다는 것 等等이다.

즉 ‘첫째, 둘째’의 論據로서 우리는 血緣共同體의 諸集團으로서의 ‘村’ ‘邑落’ ‘國邑’等 中小共同體에는 ‘村長’ ‘邑長’ ‘主帥’ ‘邑倂’ 등으로 불려지는 血緣的 家父長的 首長은 이것보다 上位概念으로서의 大共同體인 ‘國’의 首長인 ‘渠帥’ ‘臣智’ 등과 相互 階層的 乃至 重層的으로 關聯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容易하게 짐작이 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區區한 說明조차 必要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具體적으로 如何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깊은 研究와 論證을 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째, 넷째’의 論據에 대해서도 若干의 考察이 要請되므로 차례로 이에 대하여 以下에서 言及코자 한다.

먼저 ‘祭政分離’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건데 原始社會에 있어서는 各共同體를 中心으로 하여 呪術的 宗教儀式과 政治 經濟는 一元的으로 統合되어 있었던 것이나 “三韓時代에는 祭政一致的 原始狀態에서 훨씬 벗어나서 政治와 宗教는 分離되어 있었던 것 같다.”¹⁾ 즉 生産力이 發達하고 原始文明이 發展함에 따라서 祭祀와 政治가 完全히 分離되어 갔던 것은 人類歷史上 共通의 過程이거니와 三韓時代에도 이미 이러한 段階를 超越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먼저 論證하려고 한다. 史料에 의하면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 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懸鈴鼓 事鬼神 諸亡者其中 皆不還之…’²⁾

즉 各共同體에서는 天神을 主祭하기 위하여 ‘天君’이라고 하는 司祭官을 擁立하였고 ‘蘇塗’라는 別邑을 設置하여 이것을 神聖地域으로 삼고 여기는 治外法權의 地帶로서 罪人이 逃亡하여 오더라도 그들을 돌려 보내거나 逮捕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君’이란 司祭官은 그 種族에 관한 神話나 傳說에 通曉하고 豊富한 經驗을 가진 年老者임에 틀림이 없고 自然과 外界로부터의 侵害防止라든지 戰勝, 豐穫 等等을 祈願하는 業務를 擔當하였던 것일 것이며 앞서 말한 ‘渠帥’ ‘臣智’… ‘邑倂’ ‘村長’ 等等과는 嚴然히 別個의 人物이란 것은 疑心할 바가 없을 것이다.

끝으로 ‘辰王’에 대하여 考察하여 보건데 ‘辰王’이라 함은 辰韓의 君主이나 하면 決코 그렇지 않다. 後漢書에 의하면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凡七十八國 地合方四千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之地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月(目)支國 盡王三韓之地…’³⁾

라는 記錄이 있다. 즉 馬韓이 三韓中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그 種族 즉 馬韓種族으로 하여금 ‘辰王’으로 擁立하고 都邑은 月支國(目支國)⁴⁾에 定하였으며 辰王은 全三韓을 ‘盡王’하였다. 즉 全三韓을 總體적으로 統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여기 나타난 所謂 ‘辰王’은 ‘辰韓’의 王이 아니라 名目上 三韓 全體를 總括하는 ‘辰國’⁵⁾ 즉 全三韓의 君王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辰王’에 대해서 좀 더 詳細히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李丙燾博士

註 1) 李鍾恒著, 韓國政治史. 1964. p.40.

2) 三國志, 同上, 馬韓條.

3) 後漢書, 同上, 韓條.

4) 三國志에는 ‘月支國’, 後漢書에는 ‘目支國’으로 各各 記錄되어 있으나 後漢書는 三國志를 參考한 것이므로 ‘月支國’이 本名인듯 함. ‘月支國’은 오늘날 忠南 稷山 一帶라고 함. 震檀學會, 前掲, 韓國史 古代篇, p.285. 三韓位置比定圖, 參照.

5) 震檀學會, 韓國史, 古代篇. 1959. p.262.

에 의하면 “辰王은 字面上으로 볼 때 무슨 王權의 所有者같이도 생각되나 그 全體의인 社會性格으로 보아 到底히 그렇게는 觀念되지 않는다. 그 所謂 ‘國’이란 것도 실상은 部族社會 또는 部族聯盟體를 免치 못한 것이므로 ‘肅王三韓之地’의 主格인 ‘辰王’은 結局 總(全)聯盟體의 最高盟主로서 ‘月支國’의 渠帥가 이를 世襲하였던 것이다.”¹⁾ 다시 말하면 ‘辰王’을 最高盟主 즉 “總體的 統一體로서 人格化되어 있는 것”²⁾으로서의 Asia의 古代 專制君主가 씩트기 시작한 端初의인 形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一連의 史實을 一層 強調하여 주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史料이다. 三國志에 의하면

‘其十二國屬辰王 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不得自立爲王…’³⁾

라고 하고 있다. 즉 辰韓十二國도 辰王에게 隸屬되어 있는데 ‘辰王’은 언제나 馬韓人으로써 擁立하여 世襲되고 辰韓系의 種族으로서의 ‘辰王’이 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같은 三韓中の 하나인 辰韓도 結局은 最高統一體로서 具顯된 ‘辰王’에 대하여 隸屬關係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弁辰도 이러한 關係에서 동떨어진 어떤 獨立의인 關係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檢討해 봄으로써 그 下限을 紀元 二世紀로 하고 紀元前一,二世紀를 中心으로 하는 三韓社會 그리고 眞番以南의 ‘方四千里’에 걸쳐서 歷史的으로 展開되었던 三韓社會 其의 共同體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하여 其의 基本單位였던 ‘家’ 또는 ‘戶’를 始發點으로 하여 ‘村落’ ‘邑落’ ‘國’ ‘辰王’ 等等에 관한 可能的 限度內的 諸史料를 들추어서 究明해 본 結果 大體로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할 수 있다. 즉 血緣의 共同世帶의 그리고 家父長의 大家族을 基本單位로 하여 血緣의 地緣의 家父長의 結合된 各級共同體는 ‘家’→‘村落’→‘邑落’→‘國邑’→‘國’→‘辰國’ 等等과 같이 重層的으로 連繫되어 ‘辰王’을 “總體的 統一體로서 人格화된 것의” 盟主로 만드는 總聯盟體인 三韓社會는 그 構造에 있어서 許多한 未解決點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Asia의 共同體’의 一類型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以下에서 章을 바꾸어서 이러한 共同體를 構成하는 個個人 즉 共同體의 成員은 如何한 性格의 存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Ⅲ. 共同體 成員의 性格

三韓共同體의 個個人으로서의 成員에 대한 性格을 論하기에 앞서 그러한 經濟社會成立의 前提인 自然的 및 社會的 諸條件⁴⁾에 관하여 若干 接觸해 볼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自然的 條件에 대하여 몇가지 言及하기로 한다. 三韓社會의 自然的 條件에 대하여 살펴 보건데 Asia의 共同體는 自然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世界史上 가장 早期에 Egypt를 包含한 東洋諸社會에서 形成되어 오랜 期間동안 그리고 典型的으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指摘한 바가 있거니와⁵⁾ 이러한 東洋의 諸地域의 自然的 條件은 그 社會經濟의 發展에 如何한 影響을 주었던 것인가. “最初의 原始共同體의 構成下에서는 運河를 鑿設할 경우에 그것은 個個人的 共同體의 事業

註 1) 震檀學會, 前掲書, 古代篇, pp.264—265.

2) K. Marx, a.a.O. “die Formen…” S. 31.

3) 三國志, 同上, 辰韓條.

4) a.a.O. “die Formen…” S. 7.에서 “人間이 定住하게 되자 本源의인 形態가 如何히 變形되는가 하는 것은 自然的 外的 物理的 等的 諸條件과 함께 그 種族의 性格에 의하여 決定된다”라고 하여 自然的 및 社會的 條件을 強調하고 있으며 Asia의 古代的 및 German의 生産諸樣式의 諸特徵도 其實은 이에 緣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拙稿, ‘古代的 German의 生産樣式’, 邱大經濟論集 第四輯, 1965. 參照.

5) 拙稿, 前掲, 古代經濟史 序說 I. 및 前掲, 共同體로서의 Asia의 生産樣式. 參照.

이었으며 自由로운 共同體의 勞動에 의하였던 것이지만 個個의 共同體間에 連絡이 생기고 生産力이 增加하며 階級과 國家가 發生하여 함에 따라서 治水 灌溉事業 遂行에 관한 共同體員의 共同勞動의 管理는 支配階級の 代表者를 周圍에 끌어 모으고 그와 함께 專制的 despotisch 權力的 性格을 띤 國家의 手中으로 옮겨갔다. 治水 灌溉事業을 위한 住民의 共同勞動을 管理한다는 것은 建築事業이나 其他의 國家의 事業에도 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을 支配階級이 가지는 셈이다. 國家가 治水 灌溉事業의 管理者였기 때문에 當然히 그것은 全被灌溉地에 대한 最高의 所有權을 獲得하여 이들 土地의 大部分을 國家經濟=王室經濟에서 利用하고 共同體에는 世襲的인 占有權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¹⁾ 詩經에 나타난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詩經小雅北山)’이라는 東洋의 土地王有制=國有制는 實로 여기서 緣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世紀의 東洋學者 위트포겔 K.A. Wittfogel도 이 問題를 直接 中國社會에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村落共同體의 分解를 위한 物質的 基礎는 金屬工具의 採用을 통한 勞動生産力의 增進 및 특히 北支那(黃河流域…筆者)에 있어서의 周時代 以來 널리 利用되기에 이른 灌溉에 의해서 準備된 것이다. 元來 勞動의 私의 形態로 보며 勞動의 公的 形態(堤防과 運河의 築設…原文)의 發達이 이제야 農業生産의 私의 形態에 대하여 決定的으로 反作用을 하였던 것이다. 灌溉는…, 北支那 東部に 있어서의 公共事業의 發達(最初는 堤防築設…原文)은 結局 農業生産의 支配의 形態로 化할 때까지 公共的 運河의 建設에 의하여 維持된 灌溉農耕을 招來하였던 것이다.”²⁾

이와 같이 볼 때 한 社會에 주어진 自然的 條件이란 것은 社會의 生産力 生産關係 및 社會 構造에 絶對的인 影響을 끼친다는 것을 充分히 看取할 수 있거니와 過然 우리 韓國社會 특히 三韓時代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自然的 諸條件이 그대로 作用되었던지의 與否를 살펴 보기로 한다.

생각컨대 三韓時代에 있어서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每年 定期的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夏季 豪雨期에는 大洪水가 때로는 大旱魃이 來襲하였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洛東江 錦江 漢江 等 流域에 자리잡은 三韓의 諸共同體가 定着하고 있었던 地帶에서도 洪水와 旱魃로 莫大한 人命 財產 및 農作物의 被害를 입었을 것이나 이에 對備하여 具體적으로 如何한 治水 灌溉工事が 遂行되었던 것인가 하는 點에 대해서는 全혀 記錄이 없기 때문에 確認할 길이 없다. 그러나 灌溉工事만은 相當한 程度로 勵行되었던 것 같다. 즉 “우리 古代社會에는 堤池(貯水池)의 築造가 盛行하여 國名 郡名에도 堤池의 語가 붙은 것이 많거니와 實際 遺蹟으로 보더라도 金堤의 碧骨池, 尙州의 恭檢池, 丹密(義城)의 大堤池, 堤川의 義林池, 密陽의 守山池와 같은 것은 모두 歷史가 오랜 堤池로—지금은 더러는 廢止된 것도 있지만—나는(李丙巖博士) 三韓以來의 遺蹟으로 確認하고”³⁾ 있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三韓時代에는 이미 相當한 程度로 治水 灌溉 等の 公共事業이 要請되었으며 또 遂行되었던 것도 史實로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自然的 條件이 餘他의 東洋의 諸社會와 治似하다고 해서 그 結果로 招來된 公共事業의 必然的 要請에 의해서 中國을 爲始한 東洋의 諸社會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은 共通의 特殊性 즉 ‘Asia의 共同體’가 三韓社會에서 形成되었다고 規定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韓國은 自然的 條件만 으로서 考察할 적에 도리어 古典古代社會의 文明이 發祥한 발칸半島나 이탈리아半島와 治似

註 1) 林奩等 監修, 조선역사學叢書 卷1, 奴隸制社會의 諸問題, p.271에서 引用.

2) K.A. Wittfogel, The Foundations and Stages of the Chinese Economic History. 1935.

森谷吉己譯, 東洋의 社會의 理論. 1939. p.94에서 引用.

3) 震檀學會, 前掲書, 古代篇, p.306에서 引用.

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不拘하고 三韓社會가 ‘Asia의 共同體’의 카테고리에 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보다도 社會의 條件에 影響된 바가 絶對的으로 더 크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社會의 諸條件을 自然的 諸條件과 對比하면서 論述하여야 되겠지만 紙面關係로 略하는 바이며 다만 社會의 諸條件中에서도 大陸國族 特히 中國民族과의 諸關係는 三韓社會의 成立以前에도 우리社會形成에 決定的 役割을 하였던 것이라는 것¹⁾을 強調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三韓經濟社會도 自然的 乃至 社會의 諸條件의 絶對的인 影響下에 이루어진 (비록 中國과의 交渉으로 社會의 條件에서 입은 바 影響이 壓倒的으로 强하다 하더라도) 社會임을 否認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三韓社會에 이러한 前提가 事實에 合當하는 限 그리고 또 中國의 古代社會를 ‘Asia의 古代’의 카테고리 안에 包含시킬 수 있는 限 三韓의 社會經濟의 諸現象이야말로 ‘Asia의 共同體’ 또는 ‘Asia의 共同體’에서 ‘Asia의 古代’로 移行하고 있는 過渡段階의 性格을 特徵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어느 한 段階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以下에서 이 問題에 다시 一步 接近하기 위하여 三韓社會에서 生産業을 全擔하고 있었던 共同體의 成員으로서의 個個人의 社會經濟의 性格을 究明하기로 한다.

三國志에 의하면

‘其國中 有所爲 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大許木鐺之 通口 嚙呼作力 不以爲痛 既以勸作 且以爲健…’²⁾

이라고 한 貴重한 史料을 찾아 볼 수가 있다. 資料의 貴重性에 비추어 먼저 原文을 그대로 直譯해 보면 “그나라(馬韓)에 할 일이 있어 官府나 城廓을 築造함에 ‘年少勇健者’는 모두 등 접질을 파서 큰 새끼로써 이에 꿰뚫고 또한 大許木(한말쯤 되는 나무막대)를 이에 꽂아서 終日 嚙呼하면서 作力하니 썩 아프지도 않고 서로 힘을 다하여(既=힘다할 기字) 일하게 하며 또한 썩 튼튼해 지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史料에 대해서는 從來 두가지 說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李丙燾博士의 說이고 다른 하나는 白南雲博士의 說이다. 前者에 의하면 ‘皆鑿脊皮…杖許木挿之’라는 部分을 特히 強調하여 “脊皮를 반드시 사람의 그것으로 解釋할 理由는 없다. …사람의 背部에 대는 獸皮도 이를 脊皮라 할 수 있는 것이다. …脊部에 獸脊皮를 붙이고 大繩과 大許木으로써 꿰것은…저게인 것이다.”³⁾라고 하여 그것을 저게로서 重勞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斷定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後者 즉 白南雲氏의 說에 의하면 그는 三韓時代에 있어서의 ‘奴隸制의 發生’이란 題下에서 同時代에는 古典古代 社會에서 보는 바와 같은 大量的의 奴隸群이 發生하고 있다고 前提하고 ‘諸年少勇健者’에 이르러서는 “그 勞動이 얼마나 强壓의이었던가를 充分히 看取할 수가 있다. 그만큼 激烈한 勞動을 苦痛으로 알지 않는다는 것을 곧 ‘勇健者’로 規定해 버린다는 것은 皮相의인 觀察에 不過하다. …그들의 骨肉은 血汗과 함께 剝奪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勞動狀態를 強制勞動으로 보지 않는 자가 있다면(그것은) 方法論의 缺陷이 아니면 眼識의 無能力者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強制勞動이야말로 奴隸制의 一具象이었던 것이다.”⁴⁾라고 하면서 이것을 奴隸群의 強制勞動으로 規定하고 있다.

註 1) 오늘날의 韓國經濟는 오늘날의 韓美關係를 度外視하고 把握할 수 없고 韓國의 近代化過程을 日本의 侵略過程을 考慮에 넣지 않고 理解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李朝 以前의 社會經濟는 中國과의 諸關係下에서 形成 發展되어 갔던 것은 두말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三韓社會成立 以前의 大陸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拙稿, 韓國古代經濟史 序說 II, 1965. 邱大論文集, 第五輯 參照.

2) 三國志, 同上, 馬韓條.

3) 震檀學會, 前掲, 韓國史 古代篇, p.311에서 引用.

4) 白南雲著, 前掲書, p.124에서 引用.

그러나 以上에서 引用한 兩說을 結論부터 먼저 말하면 筆者는 兩說을 모두 否定한다. 즉 첫째; 그것을 勞動要具로서 ‘지개’ 勞動이라고 하는 李丙燾博士의 說을 否定하고 筆者는 그것을 勞動方法으로서 ‘목도’ 勞動이라고 본다. 즉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杖許木鍾之’란 句節은 官家나 城郭을 築造하기 위한 巨大한 石材나 木材 其他 무거운 資材를 運搬하려고 할 때 協業的 목도勞動을 中國人의 眼目으로 觀察 記錄한 것일 것이다. 즉 그들은 石材等を 大繩으로 묶어서 杖木으로 이를 繫다음 諸動作을 相互 맞추기 위하여(共同步調를 取할 수 있도록) ‘영치기 영차’ 따위의 嚙呼聲을 울리면서 힘을 지었으니(嚙呼作力) ‘不以爲痛 既以勸作 且以爲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協業的 목도勞動의 結果 그들의 背部는 ‘皆鑿脊皮’狀態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이 가는 것은 오늘날 목도勞動을 하고 있는 埠頭勞動者들을 보아 聯想할 수가 있다. 한便 가령 이것을 지개로 重荷를 運搬하는 것으로 假定해 본다면 그들은 苦痛스러운 나머지 公중 얕을지언정 嚙呼聲을 울릴 수는 더욱 없었을 것이 아닌가.

둘째; ‘勇健者’에 관한 問題이다. 白南雲博士는 이들을 奴隸로 規定한데 대하여 異見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勞動이 強制的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程度의 差는 있겠지만 그것이 強制的이었을 것임은 再言을 不要할 것이나 白氏 自身이 主張한 바와 같이 實로 自身의 ‘方法論上의 缺陷’으로 因하여 그것을 ‘奴隸勞動의 一具象’으로 認識하였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즉 白氏는 그 方法論에 있어서 世界史的인 一元的 歷史法則을 韓國의 特殊具體性에다 關聯시킨에 있어서 一般的 普遍性과 特殊具體性 사이의 矛盾과 統一을 올바르게 把握하지 못하였으며 具體的인 것으로부터 抽象的인 것으로의 適用에 있어서 너무나 성급하였기 때문에 ‘諸年少勇健者’는 古代奴隸처럼 보였고 나아가서 三國社會를 奴隸社會로 斷定하고 여기서 始發한 誤謬는 그가 實로 前無 後無한 程度로 龐大한 史料를 들추어서 韓國經濟史學界에 커다란 功獻을 하였으면서도 結局은 그것을 歪曲되게 把握한 것이 아닌가 한다¹⁾.

그러면 年少勇健者는 當該社會에 있어서 如何한 存在였던가? 적어도 그들은 古典的 奴隸와 同一한 概念의 社會階級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앞질러 말해 두고 싶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古典古代的 奴隸란 말하는 道具 *Werkzeug*이며 生産手段의 一要素로서의 勞動手段인 것이다.(아리스터틀) 그러므로 古典古代的 生産樣式에 있어서는 勞動力과 勞動手段의 結合樣式이 餘他的 古代的 社會의 그것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하여 支配와 服屬의 諸關係는 生産過程의 直接的인 原動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²⁾. 그럼에도 不拘하고 古典古代的 奴隸制度를 그대로 移植하여 三韓時代에는 그것이 發生하기 시작하여 三國時代에는 典型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함이야 말로 誤謬가 아니고 무엇이나?

이렇게 볼 때 ‘官家使築城郭’에 動員된 ‘諸年少勇健者’는 當時 이미 相當한 程度로 分化된 階級社會에 있어서의 被支配階級인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나 奴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如何한 性格의 存在였던 것이나? 그들은 餘他的 諸 ‘Asia의 共同體’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血緣의 地緣으로 紐帶關係를 가지고 있는 ‘家父長的 連繫共同體’의 成員으로서의 個個人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 같은 共同體의 成員으로서의 ‘勇健者’는 餘他的 ‘Asia의 共同體’의 成員과 마찬가지로 官家の 營造物이나 城郭을 築造하는데 다시 말하면 公共事業에 不拂의 剩餘勞動力을 提供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共同體의 成員인 ‘勇健者’는 史料上 處處에서 ‘下戶’ ‘奴婢’ ‘奴僕’³⁾이란 이

註 1) 本稿, p. 3의 註 1 參照.

2) 拙稿, 前掲 古典古代的 및 German의 生産樣式, 參照.

3) 古典의 各史書에는 ‘下戶 奴婢 奴僕’이란 말들이 許多하게 나타나는데 白南雲氏는 한결같이 이것을 奴隸로 보고 있다.

름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中 몇가지 보기를 들어 그들의 社會階級的 性格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三國志에 의하면

‘其俗 好衣幘 下戶 詣郡朝謁 皆假衣幘…’¹⁾

라는 句節이 있다. 즉 그 風俗이 衣幘을 좋아하며 下戶가 漢의 植民府인 樂浪郡에 進謁할 때 모두 假衣幘을 쓴다는 것인데 이 때의 ‘下戶’란 奴隸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樂浪郡을 進謁할 수 있는 者는 生産手段이 아닌 어느 程度 獨立한 人格體이어야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下戶’는 當時의 社會階級上 ‘上戶’와 맞서는 社會의 存在임에는 틀림 없겠으나 이들이야말로 ‘官家使築城郭’에 出役하지 않으면 안되는 앞서 말한 ‘勇健者’와 同一한 categorie에 屬하는 共同體의 成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奴婢, 奴僕 따위는 이들과 相異한 奴隸였던가? 史料에 의하면

‘其北方近郡 美曉禮屬 其遠處 直如囚徒 奴婢相娶…’²⁾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下戶’와 ‘奴婢’는 同一한 性格의 被支配層에 屬하는 共同體의 成員이라 할 것이다. 즉 ‘北方近郡’이 ‘美曉禮屬’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보다 南方人이 囚徒처럼 보이는 것도 先進中國人의 眼目에는 當然한 일이었겠지만 ‘奴婢’自體도 先進中國人의 眼目に 비친 것이며 ‘奴婢’와 더불어 相互 婚姻關係를 맺는 當時의 社會階層인 一般民이나 ‘下戶’와 함께 그들 中國人이 본 ‘奴婢’도 共同體의 成員이라고 보아 無妨할 것이다.

끝으로 이 問題에 대하여 時間・空間의 差異는 있었다 하더라도 同一한 社會의 歷史的 段階에 놓여 있었던 初期高句麗와 夫餘社會에서 한두가지 史料를 더듬어 보컨데 ‘其國中 大家不佃坐食者 萬餘口 下戶 遠擔米糧魚鹽供給之…’³⁾

‘有敵 諸加自戰 下戶 俱擔糧飲食之…’⁴⁾

初期高句麗에 있어서 ‘大家’와 夫餘에 있어서의 ‘諸加’ 및 三韓의 ‘上戶’等等은 다같이 當時 社會의 支配階級에 屬하는 存在일 것이라면 여기 보이는 ‘下戶’란 三韓에 있어서의 下戶와 무엇이 다를 것이나? 그렇다면 그들 三韓의 下戶들도 ‘俱擔糧飲食之…’하고 ‘遠擔米糧魚鹽供給之…’하였던 것은 推理로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共同體의 成員으로서 剩餘勞動力과 剩餘勞動生産物을 公共事業을 위한 賦役勞動으로서 또 貢納Tribut으로서⁵⁾ 收納하지 않으면 안되는 生産諸關係를 形成하여 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Ⅳ. 結 言

以上에서 極히 制限된 史料를 通하여 拙劣한 方法으로나마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의 性格을 究明하여 當面한 韓國經濟史學의 一課題에 接近하려고 試圖하였다. 즉 첫째; 三韓經濟社會의 共同體의 類型을 究明하기 위하여 三韓社會의 基本的 集團이었던 ‘家’ 또는 ‘戶’를 始發點으로 하여 ‘村落→邑落→國→辰王’等에 관한 可能한 諸史料를 들추어 본 結果 血緣的 共同世帶의 家父長의 大家族을 基本單位로 하여 血緣的 地緣的 重層的으로 連鎖되어 있는 ‘Asia의 共同體’의 一類型이란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그리하여 最高 盟主로서 ‘辰王’은 餘他的

註 1) 三國志, 同上, 馬韓條.

2) 三國志, 同上, 同上.

3) 三國志, 同上, 高句麗條.

4) 三國志, 同上, 夫餘條.

5) ‘Asia의 生産樣式’의 收奪의 第一形態는 貢納이고 第二形態는 公共事業을 위한 不拂勞動 즉 賦役이다. 拙稿, 前掲, 共同體로서의 Asia의 生産樣式, 參照.

‘Asia의 共同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總體的 統一體로서의 人格化한 것’ 즉 專制君主에로까지 成長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三韓은 Asia의 古代로 發展할 素地가 多分히 內包되어 있었다는 것을 看取한 셈이다. 즉 A.D.3世紀頃에 百濟가 古代國家를 確立한 것이라든지 A.D.4世紀頃에 新羅가 古代社會를 確立한 것도 實은 三韓自體內的 이와 같은 共同體의 性格에서 究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三韓共同體의 成員에 대한 性格을 究明하기 위하여 三韓社會의 自然的 및 社會的 諸條件을 檢討하면서 特別 社會的 條件中的 하나인 中國과의 諸關係에서 끼쳐진 바 影響이 絶對的으로 컸다는 事實을 力說하였다. 그리하여 맑스主義의 古典學說에 立脚하여 三韓經濟社會를 마치 古代奴隸의 發生期인 것처럼 誤認하고 있는 從來의 一部 學說을 批判 否定하고 特殊具體性으로서의 三韓社會와 普通性으로서의 ‘Asia의 共同體’乃至 ‘Asia의 生産樣式’과 相互 關聯지우면서 三韓共同體의 生産 專擔者였던 個個人으로서의 成員의 性格에 關하여 重點的으로 檢討하였다. 즉 三韓에 關한 諸史料에 나타난 ‘下戶 奴婢 奴僕’等等은 다같이 三韓共同體의 被支配 階級인 共同體의 成員이었다는 것을 論證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成員은 餘他的 ‘Asia의 共同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一方에서는 公共事業 즉 官府의 營造라든지 城郭築造뿐만 아니라 治水 灌溉等 모든 種類의 苦役을 賊役形式으로 專擔하였고 他方에서는 貢納 즉 米穀이라든지 魚鹽뿐만 아니라 綿布·細布·足履·革鞣等等 支配階級이 必要로 하는 모든 現物을 貢納의 形態로서 總體的 統一體인 家父長群에게 收納되어 가는 繼起의 形態 즉 ‘Asia의 共同體’에서 Asia의 古代로 移行해 가는 過渡的 生産諸關係라는 것을 被支配層을 中心으로 하여 敢히 提起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說에 不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研究方法의 拙劣性도 問題가 되려니와 꼭 解決지워야 할 時急하고도 重要的 問題인 三韓社會의 所有의 諸關係 特別 土地所有의 諸關係가 未解決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正確하게 把握됨으로써 비로소 公共事業에 出役한 勞動의 根本의 性格이라든지 그들이 負擔한 貢納의 性格에 關한 諸問題가 드러날 것이며 나아가서 三韓社會의 生産 諸關係 및 支配諸關係等 그의 社會經濟的인 本來의 性格이 明白해 질 것이다. 그러나 土地所有에 대한 原史料은 文字 그대로 全無한 狀態이다. 그러므로 以上 論한 바 三韓經濟社會의 諸特徵과 ‘Asia의 共同體’의 諸特徵을 對照的으로 견주어 보건데 그것은 아마 ‘血緣의 家父長의 共同體의 所有, 즉 公有 ager publicus였을 것이며 그 成員으로서 個個人은 그것을 占有 Besitz하는데 不過한 그러한 類型이었을 것이라고 結論하는 바이다.

※

※

〈Hauptsache〉

Die gemeinschaftliche Eigenschaft der Samhanischen Sozietät

—besonders im Zusammenhang mit der asiatischen Gemeinde und Produktionsweise—

von Byong-Tak Kwon

(Asst. Prof. Taegu Universität)

I. Diese Thesis handelte sich um die gemeinschaftliche Eigenschaft der samhanischen Sozietät. Sam Han(三韓) bedeutet drei Han, d.h. Ma Han(馬韓) Chin Han(辰韓) und Byon Han(弁韓). Sie waren die vorantiken Gemeinschaften, an denen unsre koreanischen urwüchsigen Stämme etwa vor 2,000 Jahren in allen südlichen Korea gelebt hatten. Um dieselbe Eigenschaft historisch richtig zu studieren, versuchte ich, die samhanische gemeinschaftliche Besonderheit mit den asiatischen Gemeinde und Produktionsweise als die Allgemeingültigkeit zusammenzuhängen.

II. Auf das chinesische klassische Geschichtsmaterial, Sam Kuk Chi(三國志) beruhend, enthielt Sam Han etwa 78 Kuk(國); unter dem Kuk hatte sie systematisch Kuk Up(國邑) Chon Lak(村落) und Ka(家) oder. Ho(戶). Ka oder Ho sollten blutverwandtschaftliche patriarcharische Hausgemeinschaft sein, als eine sozialistische grundische Hausgemeinschaft. Chon Lak, Kuk Up und Kuk waren seine oberen größeren Gemeinwesen. Alle sie waren mit Blut und Erde dicht verwunden. Jede Klassengemeinde hatte ihren Paterfamilias, welcher Ka Chang(家長) Chon Chang(村長) Up Cha(邑借) Sin Chi(臣智) und Chin Wang(辰王) hieß. Und Chin Wang war die zusammenfassende Einheit, die auf allen diesen kleineren Gemeinwesen stand, als der höchsts und einzige Leiter erschien. So kann man sie die lätzte Periode der asiatischen Gemeinde oder die Übergangsperiode von der asiatischen Gemeinde zu der asiatische Produktionsweise reformierte zu werden erkennen.

III. Nächst besßte ich mich mit der sozialen Klassenfragen von Sam Han, besonders mit der leitendenklasse, zu welcher das Produktionswerk gänzlich beauftragt war. Vergangene Historiker (z.B. Dr. Baik Nam Un) erörterten, daß es sowohl die klassische Sklaverei als auch Koreanische Antike gewesen sei, und daß die Sklaven an der Samhanischen Periode einegraße Menge gewachsen hatten. Dann dachten sie die damaligen ärmlichen Leute, die Ha Ho(下戶) No Bi(奴婢) u.s.w. hießen, als ob Klassischen Sklaven gewesen zu sein. Aber ich kann sie nie so glauben, sondern Einzelnen, als Gestalter der Gemeinde, denn sie mußten,

teils ihre Surplusarbeiten für die Publikwerken (z.B. Wasserleitungen, Schloßbildungen), teils ihre Surplusproduktionen, als Tribut, betraut werden.

IV. Am Ende hatte ich samhanische Erdeneigentumsformen zu erörtern, doch leider kann ich es hier noch nicht deutlich machen, denn ich kann keine Geschichtsquelle von ihnen finden. Aber wenn man es mit den obererklärten politischen Ökonomischen Formen vermutet, sollte es, wie andre asiatische Gemeinde, "kein Eigentum, sondern nur Besitz der Einzels; die Gemeinde der eigentliche wirkliche Eigentümer, also Eigentum nur als gemeinschaftliches Eigentum an dem Boden" (Formen, S. 17) sein. Doch muß ich selbständig von demselben Fragen noch mehr studieren.

※

※